

3

친환경 차량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친환경 차량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사회혁신가네트워크 대표 박근식

1. 혁신이 뭐라고.

한 30년 전 무렵이던가, 혁신이라는 생경한 용어를 접한 듯합니다.

그때는 불꽃 같은 혁명의 시대임과 동시에 혁명이 어두운 역사의 뒤편길에 묻히는 시대였으니, 그저 혁명과 대치되는 정치적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후 몇 번 인가 귀동냥 한 적이 있으나, 미련하게도 여전히 미몽입니다. 겸양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스스로의 상태가 이럴진대, 혁신에 대한 어쭙은 이야기를 하자니 난감합니다. 어쨌든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삶이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을 경우까지도 소중하다면, 혁신 또한 그러하리라 믿어 봅니다.

2. 혁신은 꽃길이 아니다.

혁신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정답도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고 해서, 추상적 개념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지요. 서로의 처지와 환경이, 목표와 가치, 조직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혁신이 골치 아픈 이유입니다. 심지어, 일상의 수많은 혁신 담론은 혁신 자체를 피곤하게 만들곤 합니다. 공익, 마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청년, 협동 등 익숙한 단어들에 던지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혁신조차도 성과지표로 만들어야 할 지경이니, 혁신가의 하루

하루가 뭐 그리 행복할까요. 혁신의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 낼 수 없다는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혁신이란 말조차도 상투어가 될 수도 있으니, 누가 혁신을 하고자 할까요. 혁신은 가시밭길도 아니지만, 꽃길은 더 더욱 아닌 것 이지요.

3. 즐길 수밖에.

혁신이 삶과 밀착 되어 있는 한, 작은 혁신조차도 밀바닥과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야 혁신은 현장성이라는 꽃과 사람이라는 구체성을 잉태합니다. 혁신이 다양한 실험과 실패가 만든 행동전략인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혁신의 성공만 있고, 실패한 혁신은 이미 혁신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그래서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 한다면, 누가 도전 할까요? 물론, 혁신의 개념에는 더 나은 방법을 통한, 더 많은 수혜자를 만드는 실행이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혁신가의 삶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걷는 것일 겁니다. 혁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드는 건강한 제도이니깐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혁신가의 삶이 스스로와 타인의 불안한 영혼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면. 어렵더라도 그저 즐길 수 밖에요.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 사회공헌부장 심은정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크게 영향을 받은 해였습니다. 사회 불균형, 급속한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었던 여러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증폭되는 한편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한번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수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보다 신속하게 상황을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 공공기관, 지방정부 Tri-sector의 만남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바람직한 연결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온라인 의제 포럼 진행, ON택트 사회혁신컨퍼런스 개최 등 새로운 방식으로의 협업 논의를 실행하였고, 무엇보다 코로나 재해 극복을 위한 지역에 적합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문제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도 다양한 가운데,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각자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매칭하여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 단계 성장한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의제를 선정하고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한 크고 작은 성과들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현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대구 지역사회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바람을 갖습니다.

작은 것들을 연결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대구 지역사회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장 이은아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발굴에 참여하고, 민·관·공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과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실행 주체들과 협업 테이블을 구성하여 21개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발간되는 「2020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보고서」는 21개 지역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해결과정들을 담고 있어, 우리 지역사회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시도 및 성과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지역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씨앗이 되어 우리 대구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큰 꽃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도 대구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의제 이해하기

01. 의제 소개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15P

의제 실행 방안 17P

02. 추진체계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18P

실행주체 소개 19P

둘

의제 진행 과정 파헤치기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23P

02. 논의 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5P

의제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45P

03. 의제 실행 47P

셋

의제 내다보기 이해하기

01. 의제 실행 성과 51P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53P



하나

친환경

의제 이해하기

01. 의제 소개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15P

의제 실행 방안

17P

02. 추진체계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18P

실행주체 소개

19P

차량

01 의제소개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친환경 차량

교통약자의 이동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¹⁾의 운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대구시는 2009년부터 대구시설공단과 협약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나드리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장차²⁾ 30대로 시작한 나드리콜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특장차 150대, 개인택시 280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제를 함께 논의한 대구장애우권인문재연구소, 함께장애인지정책포럼은 특장차 수요에 못 미치는 차량 대수와 긴 대기시간, 그리고 지역 간의 이동 제한 등이 나드리콜의 큰 불편 사항이라고 토로합니다.

수소차를 활용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도에 시작한 상생협력사업의 성과 보고와 시민참여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 그 해 6월, 대구국제무지컬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제1회 시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참여 아이디어 사업 중 ‘우리동네 청정온누리 CAR’가 대상(大賞)으로 선정되어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목표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사회공헌과 청정에너지,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9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지자체는 차량 증대를 우선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지원 대상으로 대구지역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을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용화된 친환경 차량 모델 중 특별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없고 기존 나드리콜 및 친환경 차량의 개조는 관련법규제로 인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방법을 바꿔 지역복지시설에 직접 수소차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모두의 이동권!

이동권은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차량의 보급 및 확대는 화석 연료 고갈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의 논의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본 의제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따위를 장착한 차량.

2) 특수한 장비를 갖추어 특수한 용도에 쓰는 자동차,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의제 실행 방안

1. 한국가스공사의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사업'

① 법정 기부금 모집 기관 활용

-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 기탁

※ 기부금 기탁이란?

기부자와 수혜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정 기부금 모집 기관)에 기부금을 맡기는 것.

2. 지원시설 모집 및 선정

-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기관의 신뢰도, 차량 필요성과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공모 및 심사

3. 수소차 보조금 협의 및 신청

- 지자체의 수소차 보조금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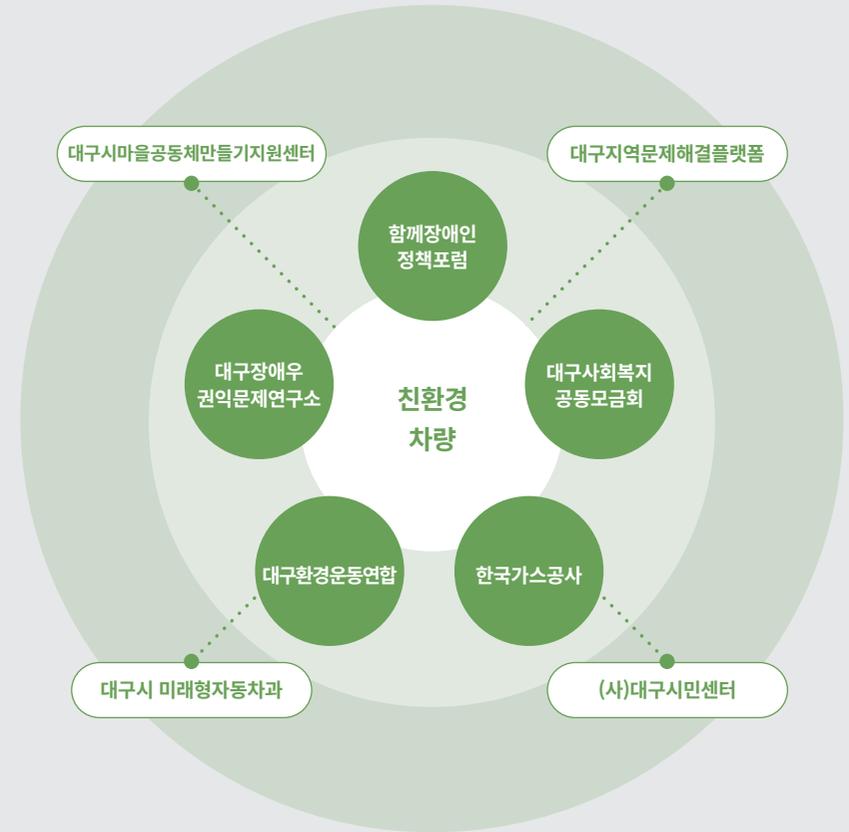
- 보조금: 해당 지역의 기관 혹은 개인 신청 가능 (약 3,500만원)

4. 지원시설 최종 선정

- 보조금 확정 및 심사결과에 따른 최종 지원 대수 결정

02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연 번	조직(단체)명	역 할	비 고
1	한국가스공사	의제 실행 자원 지원	155백만원
2	대구환경운동연합	논의 참여 및 협업지점 모색	
3	대구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논의 참여 및 협업지점 모색	
4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제 실행 지원	
5	함께장애인정책포럼	논의 참여 및 협업지점 모색	

실행 주체 소개

1

한국가스공사

설립목적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 및 복리 향상

비전

원가인하 6조원, 신수요 700만톤, 일자리 9만개, 청렴도 1등급

주요사업

- 도시가스의 제조·공급과 부산물 정제·판매
-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 건설·운영
- 천연가스의 개발, 수송 및 수출입
-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

2

대구환경운동연합

설립목적

지역에 국한된 활동에서 전국적 연대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을 추구

비전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주요사업

- 기후위기·환경보호 관련 캠페인
- 자연복원·보호 활동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 활동 및 정부 정책 감시
- UN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노력

3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설립목적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실현

비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친구가 되어 사는 인간다운 사회

주요사업

- 장애인 인권터
- 정책기획
- 장애인권교육센터
-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 피해자지원 전문인력 교육
- 피해자 지원체계 모형 개발 및 법·제도 개선
- 직업센터

4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 모금 사업을 장려

비전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랑의 열매

주요사업

- 위기 가정 재기 지원사업
- 저소득 결식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영양지원사업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증진사업
- 지역활동 청년의 정착을 위한 셰어하우스 제공사업
- 햇살인형극단의 성폭력 및 유괴예방 인형극 공연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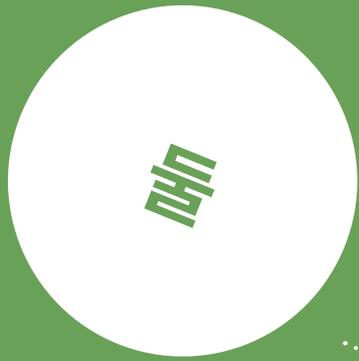
함께장애인지정책포럼

설립목적

대구 장애인계의 중간 리더 육성 및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보호, 복지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이론과 모형 발굴

비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학술 활동과 단체 간의 협력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의제 진행 과정 파헤치기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23P

02. 논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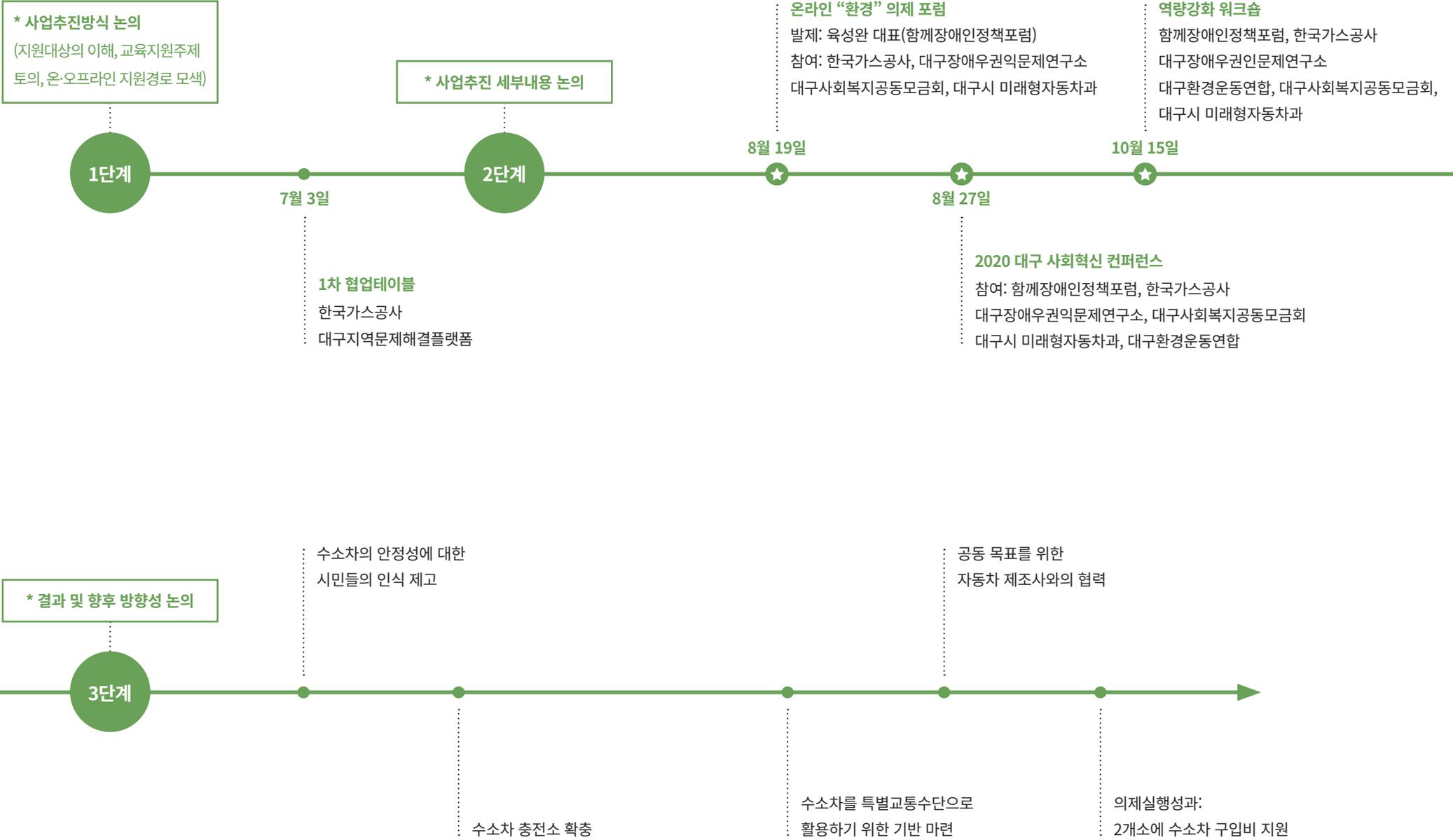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5P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45P

03. 의제 실행 47P



01 의제 추진 과정 한 눈에 담기



02 논의과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2020 ON-LINE 환경 의제 포럼



개요	일시 : 2020년 8월 19일 (수) 16:00~17:30 진행 : ZOOM 화상회의, YOUTUBE 라이브	
참여자 : 6명	한국가스공사 사회공헌부 함께장애인정책포럼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유준호 대리 육성완 대표 김수용 교육팀장 임창규 주무관 이정근 팀장 우장한 사무국장
기록자	대구광역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욱 매니저

발언기록

우장한 사무국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토론에 앞서, 두 분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에 대해서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유준호 대리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고, 다음으로 함께장애인정책포럼의 육성완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유준호 대리
한국가스공사

안녕하십니까? 유준호 대리라고 합니다.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사업'의 전체적인 과정과 배경, 그리고 계획 등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스공사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소통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한 '19년 6월 제 1회 시민보고회'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민보고회를 통해서 '우리동네 청정온누리 CAR'라는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제는 가스공사의 업(業)과 관련된 사회공헌 아이디어이면서 청정에너지를 지향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차량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역할 강화에 대한 제안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추진방향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친환경차량 구매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저희는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0월, '제 2회 대구사회혁신포럼'에서 협업 의제로 선정되어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해서도 논의되었는데, 작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협업 테이블 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대구지역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에는 친환경 차량이 없다는 것과 친환경 수소충전소 등의 인프라 부족, 긴 대기시간과 지역 간 이동 제한에 대한 나드리콜의 단점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제안사항으로는 친환경 수소버스와 지역한계를 타파할 수 있는 나드리콜 연계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사항들을 통해서 지원 대상과 지원 차량, 그리고 지역 간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목표 및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논의사항들을 통해서 장애인 이동성 편의 지원을 중점 사항으로 파악하게 되었고, 대구지역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을 지원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드리콜의 현황 및 제한사항입니다. 나드리콜은 대구시와 대구시설공단이 위수탁 협약을 맺어 2020년 6월 기준, 특장차 145대와 개인택시 280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장차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운행지역은 대구시와 대구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연접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으로 나드리콜을 포함한 특별교통수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을 운행하여야 하는데, 19년 개정으로 기존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바뀌면서 운영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증대를 우선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스공사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되는 친환경 차량 수단과 타 지역 운행도 가능한 지원 방향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중점 사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되는 친환경 차량과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및 수소사업 연결되는 차량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량선정을 위한 조사 결과,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 나드리콜용 모델인 스타렉스/카니발의 개조는 불가능했습니다. 수소차(넥쏘)의 개조 및 신규 모델(승합차) 검토는 차고가 낮은 수소차의 특성으로 인한 개조의 어려움과 가격의 비효율성, 공장라인 신설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소 버스에 대한 검토는 높은 단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나드리콜에 부적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친환경 차량 중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되는 차량이 없어서 지원 대상을 장애인 복지시설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차량은 정부 정책 중 그린뉴딜과 공사의 수소사업을 연계하여 수소차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수소차 구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법정 기부금 모집 기관인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시설에 대한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이 가능할 시에는 차량을 4대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이 적기 때문에 급진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타 기관을 통한 점진적 보급 확대를 통해서 이동 편의성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심사과정에서 복지시설의 친환경 차량 이용을 다각화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환경 차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의 운행 대수 산정대상(150명당 1대) 예외 규정과 나드리콜의 휠체어 이용자 비율을 보았을 때, 비휠체어 이용자의 비중이 높아져(약 85%) 나드리콜에 대한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량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 이용자의 나드리콜 대기시간이 비휠체어에 비해 길기 때문에 비휠체어 차량을 나드리콜에 지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같이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국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전국에 3천 9백여 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별로 친환경 차량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장한 사무국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작년 가스공사에서 시민공모를 통해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로 채택된 이후에 조금 더 깊은 논의가 필요했었는데, 유준호 대리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나드리콜에 대한 차량 지원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시고, 하지만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차량 활용 방안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육성완 대표님께서 친환경 차량과 이동권 문제를 접목시켰을 때 어떤 방안이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에 대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해주시겠습니다.

육성완 대표 함께장애인정책포럼

안녕하세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유준호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고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과 단체에 질문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통약자의 정의와 이동권, 다음으로 의미와 제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몇 가지 논의를 제시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교통 문제는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자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동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동할 수 있어야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의 경우 2019년부터 친환경 전기버스를 도입하여 시범 운행하였으며, 대구형 전기버스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2022년까지 13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차량은 환경적 고려와 권리에 대한 고려로 볼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차량 배기가스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에 있어서 친환경 차량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생각해 볼 논의는 친환경 차량의 인프라 확보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차량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만들어진다면 기존물량의 대체를 넘어서 '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확대 없이 대체만 된다면 환경적 고려와 이동권 보장에 미비한 숫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종 등에 우선되어야 할 문제는 나드리콜의 비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아니라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장차입니다. 비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택시 차량이 많고 요금을 보존해주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적습니다. 반대로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률은 이용자에 비해 차량이 적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가스공사가 고민한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된다면 비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택시 차량의 확대보다는 특장차의 확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장차의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나하나씩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장한 사무국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감사합니다. 육성완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우선 교통약자가 이동권과 관련된 특정 계층이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환기시켜주셨고, 친환경 차량과 이동권을 결합시키는 것이 상당히 의미있는 과제라는 것을 강조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도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특별교통수단 중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장차 확대인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에서 현재 상용화 되어있는 친환경 차량의 개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다른 차량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난항이 있다 보니, 고민 끝에 이런 제안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그 제안이 실제 현장에서 고민할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논의된 이 의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셨던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김수용 팀장님께서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김수용 팀장
대구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저는 이동권에 더해 장애인의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장차의 도입 계기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장차의 수가 적고 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차량이 많다 보니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이것이 낮은 이용률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소 차량의 경우에는 나드리콜과는 별도로 운행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관광을 위해 마을버스타 셔틀버스로 운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외곽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나드리콜 배차가 잘 됩니다. 하지만 외곽에서 대구 시내로 이동할 때에는 배차가 너무 힘들니다. 제가 외곽에서 나드리콜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최소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배차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불편한 외곽지역에 수소 차량 등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면,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장한 사무국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네, 감사합니다. 김수용 팀장님께서 앞선 발제에 있어서 논의를 확장해주셨습니다. 친환경 차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실제 이동권에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수소 차량 자체가 특정 차종에 제한되어 있는데 버스타 다른 형태의 차량이 수소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으로 확장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준호 대리님께서 그동안의 경과를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과 제한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소차의 보조금과 관련된 이슈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 임창규 주무관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임창규 주무관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수소차 보급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 50대를 보급하였고, 저희의 목표는 2022년까지 총 1,000대의 수소차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조금은 넥쏘 기준으로 3,500만원이었고, 내년 보조금은 올해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과 관련해서는 상용화된 수소차 모델이 현대차에서 생산되는 넥쏘와 대형노선버스밖에 없다보니, 다양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장한 사무국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임창규 주무관님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보조금이나 상용 가능한 수소차의 제한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작년 의제 채택 후, 올해에는 가스공사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여 친환경 차량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정근 팀장님께서 수소차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이정근 팀장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정근입니다. 복지에 대한 개념이 의식주라는 보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삶의 질, 문화와 같은 광의적 개념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의식주처럼 기초 복지에 가까우며, 해결해야 할 복지문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차량을 지원해주셔서 그 복지에 대한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량 지원은 공모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량의 필요성과 활용도,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면접이나 현장심사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장한 사무국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이정근 팀장님께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모와 심사를 통한 차량 지원 계획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의 말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Q.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 지원이 실제 수요자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 단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준호 대리
한국가스공사
A. 모금회와 구체적인 계획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차량을 타 기관과 협조해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다면 심사과정에서 우선순위의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근 팀장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A. 한정된 복지자원을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에 부합하도록 심사과정에서 차량의 활용도의 관점에서 보다 세심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성완 대표
함께장애인지원센터
A. 공동모금회로 지원되는 차량은 넥쏘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친환경 차량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교통약자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지원받게 되면 차량 일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데 질문의 내용처럼 차량을 여러 기관이 공유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완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넓히기 위한 조금 더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규모가 큰 기관에 이와 같은 혜택이 많이 가는데 작은 단체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나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근 팀장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휠체어 이용자들이 넥쏘 차량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받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성완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원 차량의 기관 업무 활용도 재가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작은 단체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지원되는 차량이 수소 차량이다 보니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의 수소차 충전소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임창규 주무관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
A. 수소차 충전소는 성서 호림 네거리 버스 차고지 내에 1개소를 설치했고 8월 26일부터 사업 운영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북구 관음동 버스 차고지 내에서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까지 시에서 운영하게 될 수소 충전소는 2개소입니다.

유준호 대리
한국가스공사
A.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7월 중으로 동구에서 충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수소차의 안정성과 친환경성은 어떠한가요?

임창규 주무관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
A. 수소 폭발을 많이 연상하셔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 같습니다. 만약 수소 연료가 샌다면 수소의 공기 중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일 것이고, 연료 탱크를 비롯한 수소 관련 사고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제조사나 충전소에서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앞으로 친환경 수소 경제 확산을 위해서 수소 차량 확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장한 사무국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질문해주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수소 차량의 안정성과 친환경성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의제가 잘 실행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공적으로 활용된다면 차량에 대한 인식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오셨던 한국가스공사의 입장을 유준호 대리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준호 대리
한국가스공사

김수용 팀장님의 말처럼 한국가스공사도 수소 버스에 대해서 고려해봤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나드리콜 담당자를 통해 수소 버스가 나드리콜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소 버스를 타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신규 사업이다 보니 내부 설득이 어려워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의 개조는 아직 높은 단가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수소 버스를 개조해서 휠체어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장한 사무국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감사합니다. 버스 활용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현대차에서는 차량 개조 측면, 대구시시설공단에서는 운용 측면에서 비용이 높다보니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하지만, 대구시설공단을 통해 나드리콜로 운용되었을 때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제가 이동권과 친환경이라는 가치를 함께 담으려다 보니 고민할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수용 팀장님께서 맨 처음 토론 발언을 해주셨고 전체적인 논의 과정을 들으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제안하거나 말씀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김수용 팀장
대구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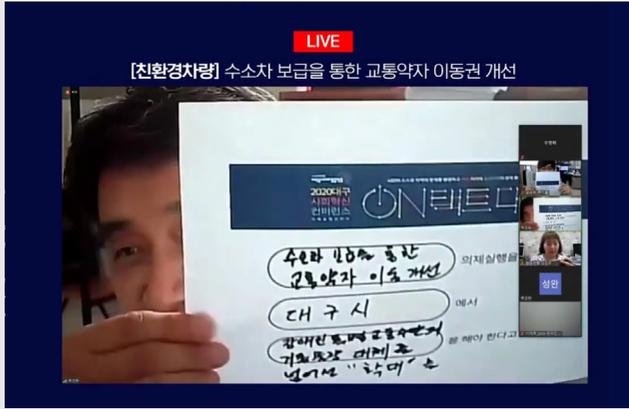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런 논의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논의 방향들이 단순히 장애인 이동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장한 사무국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저희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김수용 팀장님께서 모두를 위한 논의로 고민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문제해결방식을 뛰어넘어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당사자, 중간조직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열었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컨퍼런스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공감대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하고, 이후에는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와 성과적 측면,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의제실행선언식: 대구, ON-LINE으로 접속하다.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개요	일시 : 2020년 8월 27일 (목) 14:00~17:00 진행 : ZOOM 화상회의, YOUTUBE 라이브	
퍼실리테이터	함께장애인지정책포럼	육성완 대표
참여자 : 6명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	임창규 주무관
	한국가스공사	유준호 대리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류기흠 대리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수용 팀장
	대구환경운동연합	김민조 부장
기록자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김재훈 연구원

워크시트 내용

김민조 부장
대구환경운동연합

친환경 차량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환경운동연합 에서

에너지전환운동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제고되어 에너지전환운동이 입법, 생활면으로 확대되어야 함. 수소 제조 방식도 친환경적으로 변경해야 함

김수용 팀장
대구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친환경 차량 의제 실행을 위해

휠체어 이용자 들이

친환경 차량 홍보와 건의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워크시트 내용

류기흠 대리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친환경 차량 의제 실행을 위해

공동모금회 에서

차량 제조사에게 교통약자 관련 친환경 특수차량 제작확대 요청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업 스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친환경 차량 제작을 고려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예상

유준호 대리
한국가스공사

친환경 차량 의제 실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에서

중장기적 차량 지원 계획수립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차량 보급 확대에 대한 계획과 수소 수출 기지와의 연계성 고려

임창규 주무관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

친환경 차량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시 에서

수소차 보급사업 확대와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수소차 보급 확대에 있어서 수소 충전소 확충이 가장 중요함. 2020년 8월부터 성서 수소충전소 운영, 2021년 북구 수소충전소 운영예정
- 2030년까지 대구 시내에 40개의 수소충전소 확충 계획

육성완 대표
함께장애인지정책포럼

친환경 차량 의제 실행을 위해

대구시 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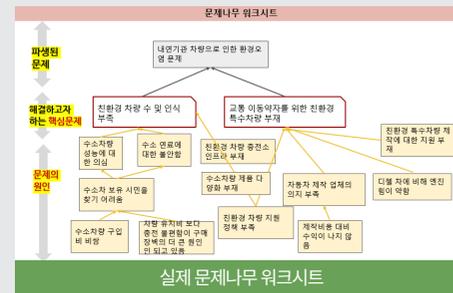
특별교통수단의 친환경 차량 대체를 넘어 운영 대수 확대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통의 목표를 두고 협업합니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역량강화 워크숍



개요	일시 : 2020년 10월 15일 (목)	
	진행 : 대구 중구 태평로160 대구스테이션센터 12층	
참여자 : 4명	함께장애인지정책포럼	육성완 대표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	임창규 주무관
	한국가스공사	유준호 대리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류기흠 대리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수용 팀장
	대구환경운동연합	김민조 부장
	기록자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워크시트 내용

문제나무 워크시트

파생된 문제

내연기관 차량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

친환경 차량 보급 및 인식 부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중 친환경 차량 부재

문제의 원인

수소차에 대한 불안과 의심

친환경 특별교통수단 제작에 대한 자원 부족

불편한 충전이 구매 장벽의 큰 원인

버스로 활용하기 위한 수소차의 높은 비용

친환경 차량 인프라 부재

단일모델 생산으로 차량 활용 다각화 어려움

1

목표나무 워크시트

문제 해결 목표

내연기관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

문제 해결 목표

친환경 차량 인식 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친환경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확산

목표 달성하기 위한 과정

수소차 안전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

친환경 차량 충전소 인프라 구축

공동 목표를 위한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력

친환경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

3

2

의제 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수소차보급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협업테이블 1차



개요
일시 : 2020년 7월 3일(금) 10:00~12:00
진행 : 한국가스공사 2층 (동구 첨단로 120)

참여자 : 5명

한국가스공사	유준호 대리
	한가영 주임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선임매니저
	권준열 매니저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19년도 연속 실행의제 추진 상황 공유 (친환경차량/사회적모성애)

- 올해 대구지역(지역복지센터)에 ‘수소차’ 2대 지원 예정
- 본 공사는 수혜자에 대한 명확한 대상과 구체적인 실행 운영이 필요 (한국가스공사) 이에 노인,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복지센터’부터 시작할 예정
- 수소차를 특별교통수단의 근거로 마련 가능 여부 확인 (플랫폼 사무국)
 - 수소차 충전소 건립
- 올해 달서구 성서 8월 중 완공(예정)
 -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준공해서 내년 6월 완공(예정)
- 올해 의제가 된다면, 충전소 건립 과정에서 민간/행정이 협업 희망(플랫폼)
- 대구시와 협업하여 ‘대구경북연구원’ 연구과제 요청 방안 고려

03 의제실행

수소차 보급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1

협업 테이블 및 의제 간담회

2019년도부터 논의되었던 본 의제는 2020년 7월 3일에 있었던 협업 테이블과 8월 의제 간담회를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대구지역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클’에 CNG(압축천연가스) 또는 수소 차량을 지원하기로 했던 한국가스공사는 관련법의 규제와 현실적인 한계로 사업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시설에 수소차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 기탁

사업은 기부금 기탁, 시설 모집 및 선정, 보조금 협의 및 신청, 최종 선정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 모집 기관인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되었고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원할 시설의 신뢰도, 차량 필요성과 활용성 등을 심사하여 두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3

수소차 구입 지원

공동모금회의 심사를 통해 한국농아인협회대구광역시협회와 비콘(사회복지법인 베네스트)이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한국가스공사의 기부금(1억 5천 5백만원, 각 7천 7백 5십만원)은 선정된 기관의 수소 차량 구입을 위해 지원되었습니다.



셋

의제 내다보기 이해하기

01. 의제 실행 성과

51P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53P



친환경



차량

01 의제 실행 성과

친환경 차량 의제 실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①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친환경 에너지 의식 제고
-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향상
- ③ 대구지역 복지시설 2개소에 수소차 지원 (각 1대)
기부금: 총 155,000,000원 (일억오천오백만원), 각 77,500,000원 (칠천칠백오십만원)
지원대상: 한국농아인협회대구광역시협회, 비콘(사회복지법인 베네스트)
지원차량: 수소차 (현대 넥쏘)
- ④ 언론보도 - 1회
※ 보도자료: 뉴스민, '공공기관 주도 넘어 시민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사회공헌으로', 2020
<http://www.newsmn.co.kr/news/54400/>

협업테이블

1 회

선정기관 차량 구매 지원

2 곳

의제 간담회

2 회

언론 보도

1 회

02 향후 의제 실행 계획

1 수소차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



2 수소차 충전소 확충



3 수소차를 특별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



4 공동 목표를 위한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력

